

# 명절 '가족여행' 이제 대세

## 대한항공, 국제선 81% 국내선 90% 예약률...일본 노선 95% 기록 LCC, 근거리 예약률 평균 90% ↑...노선 증편으로 대목잡기 나서



설 연휴 귀향 대신 해외 여행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설 연휴에는 일본·동남아 등 5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 예약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올해 설 연휴 국제선 평균 예약률은 81% 국내선 평균 예약률은 90%로 집계됐다. 국제선의 경우 일본 78% 중국 71% 동남아 79% 미주 73% 구주 97%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도시별로 살펴보면 유럽 바르셀로나 97%, 로마 99%, 비엔나 99%, 취리히 99%, 미국 하와이 90%, 괌 98%, 푸켓 90%, 아모리 99%, 삿포르 99%, 가고시마 96% 등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아시아항공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90.4%, 국제선 82.1%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국제선의 경우 일본 84.6%, 중국 75.2%, 동남아 85.4%, 미주 83.8%, 유럽 83.3%, 대양주 82.7%의 예약이 진행됐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근거리 국제선 예약률이 90%를 넘

어서는 등 인기몰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내선 예약률이 93%로 집계됐다. 국제선의 경우 대양주 88% 동남아 80%, 일본 92%, 중국 75%, 홍콩·마카오 95%, 블라디보스토크 80%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마쓰야마 99%, 후쿠오카 96%, 오사카 94%의 예약률을 보였다.

진에어의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국내선 예약률은 91%, 국제선 예약률은 85%로 집계됐다.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83% 국제선의 경우 일본 93%, 동남아 90%, 대양주 96%, 중국 81% 등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예약률이 각각 87%로 나타났다. 근거리 여행지로 분류되는 대만 95% 홍콩 95%, 도쿄 94%, 오키나와 93%의 높은 예약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서울은 국제선 노선 예약률이 평균 95~100%로 집계됐다. 코타키나발루, 칼리보 등 동남아 노선은 평균 80%~90% 정도다.

이처럼 설 명절 기간동안 제주도를 비롯해 해외를 찾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각 항공사들은 국내선 임시 항공기편 운항 및 국제선 노선 증편을 통해 명절 특수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국제선의 경우 기존 노선의 그대로 운영키로 했지만 국내선의 경우 임시 항공기편을 마련키로 했다.

임시편이 추가되는 노선은 김포~제주, 김포~부산 2개 노선으로 총 32개 운항편에 5734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시아항공은 국내선 김포~제주, 광주~김포 등 2개 노선에서 항공기를 소형에서 중형으로 전환하는 등 25편에 총 2571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제주항공은 오는 22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 104편의 임시편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제주항공이 국내선 운항은 하루 평균 68편에서 74편으로 증가한다.

진에어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인천~타이베이 노선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스타항공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을 일부 증편하고 국제선의 경우 일본(오사카, 삿포르), 베트남(다낭) 정기편을 증편하고 부정기편(청주-오사카)도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명절 전에 가족·친지를 찾아보고 명절에 가족 단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여행이 인기몰이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한국 車생산규모 2년째 내리막길... '빅6'도 위태

## 전년 대비 2.7% 감소 411만4913대 생산

한국이 지난해 자동차 생산국 6위를 차지했다. 2016년 인도에게 5위를 빼앗겨 '빅6'에서 밀려난 데 이어 2년 연속 6위를 차지한 것이다.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해 411만4913대를 생산했다.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감소율은 2016년 7.2%에 비해 2.7%로 낮아졌지만 미국(-8.2%)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생산량 톱10 중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독일(-2.8%), 스페인(-1.3%) 등 네 개 국가였다.

특히 한국은 멕시코에게 생산량 6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위를 차지한 멕시코는 2016년 대비 한국과의 생산량 격차를 크게 좁이며 맹추격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해 전년 대비 생산량이 13% 증가한 406만 8415대를 생산해 한국과의 생산량 격차를 대폭 좁혔다. 한국과 멕시코의 생산량 격차는 2016년 66만8000대에서 지난해 4만6000대로 줄었다. 이대로라면 멕시코에게 빅6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량 1위는 2901만 5400대를 생산해 29.3%를 차지한 중국이었다. 전년 대비 3.2% 증가했지만 소형차 구매세 할인 축소와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라 2016년 14.5%가 증가했

던 데 비해 증가율이 하락했다. 미국은 전년 대비 8.2% 감소해 1118만 2044대로 생산량 2위를 차지했다. 지난 7년간 지속된 자동차시장 성장으로 대기 수요가 소진된 데다 구조적 세단 시장이 축소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부담 증가 등으로 수요가 감소했다.

일본은 내수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2% 증가한 968만 4146대를 생산해 생산량 3위를 기록했다. 독일(605만 973대)은 수출 감소로 인해 전체 생산이 소폭 감소했다.

2016년 톱5로 등극한 인도(477만 9849대)는 지난해에도 5위를 차지했다. 모디정부의 화폐개혁이 조기에 안정되고 단일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 인하효과로 내수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스



# 롯데마트, 몸도 지갑도 가벼운 실속 선물세트 판매

12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몸도 지갑도 가벼운 소포장, 경량화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6일까지 설을 맞아 불필요한 부자재를 없애고 상품의 가치를 높인 데 집중한 소포장, 경량화 실속형 선물세트 5종을 선보인다.

# "한우 등 5만~10만원대 고급 설 선물세트 수요↑"

한우가 설을 앞두고 명절선물의 대표주자로 다시 돌아왔다.

12일 육선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비를 내세운 1만~3만원대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였던 것과 반대로 올 설에는 한우를 비롯해 굴비, 갈치, 버섯 등 5만~1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육선이 설을 일주일 앞둔 최근 한

주(1~7일) 동안 관련 상품들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설 동기간 대비 한우 선물세트 판매가 경증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스테이크용으로 좋은 한우 등심·구이 선물세트가 6배(53.7%) 이상 급증했고 한우양념육세트도 4배(338%) 이상 증가했다. 한우갈비세트(46%)와 한우사골세트(30%) 판매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농·수산물도 5만원대 이상의 선물세트가 잘 팔렸다. 프리미엄 선물로 손꼽히는 굴비는 37% 신장했고 갈치·육통선물세트(23%)도 판매가 늘었다.

반면 지난해 불티나게 팔렸던 합리적인 가격대의 실속형 선물세트 인기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돼지고기세트는 19% 성장에 머물렀다.

고등어 선물세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23% 줄었고, 가성비가 뛰어난 바다선물세트(-14%)와 생활선물세트(-18%)도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다.

# 정부, 한파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긴급 지원

정부가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자연재해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면세유도 추가 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파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한파 피해 정밀조사를 거쳐 복구 계획을 세운 뒤 지난해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

준을 처음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재해복구비는 농약대(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과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로 나뉜다.

농약대는 채소류의 경우 ha(헥타르·1ha=1만㎡)당 30만원에서 5.6배 인상된 168만원을, 과수류는 ha당 63만원에서 2.7배 오른 175만원

을 각각 지원한다. 대파대는 염채류(ha당 297만→410만원)의 경우 1.4배, 과채류(ha당 392만→619만원)는 1.6배 지난해보다 더 받게 된다. 면세유를 추가 배정해 농가의 시설 경영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 작물의 생육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재결속·조기 출하를 위한 현장 작업 소요 증가를 감안해 작업 투입인력도 지원한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